



법인 스님은 스스로 끈지 않으면 세상을 공개 할 수 없다는 간단한 이치야말로 정토를 여는 진리라고 강조한다.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법”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법인 스님 (천안 각원사 주지)

법인 스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불자들은 쉽게 스님을 잊지 못한다. 날카로운 눈매에서 풍기는 위엄은 상대방을 압도한다. 하지만 정작 대화를 나누다보면 따뜻하고 자상함을 금방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도 뱃속 깊은 곳을 찌르는 화두를 던진다. 예두르는 듯 하면서도 직접적이고, 직접적인 듯 하면서도 예두르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꼭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오기 같은 것이 생긴다.

“마음을 비워야지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합니다. 자비심을 베푸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됩니다. 스님이 아닌 속인들에게 이것이 쉬울 리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스스로가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고 귀한 말이라도

3시간 남짓 수면...손에는 늘 책 들려 있어
75년 日 명월사 창건하고 해외포교 앞장
지역민들 공부·신행할 수 있는 화관 건립중

말은 그저 말일 뿐이지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법입니다.” 법인 스님이 천안 각원사에 있는 날은 많아 한두 달에 이삼일 정도다. 일본 도쿄의 명월사에서 매월 또는 격월로 초하루법회 때에 각원사에 왔다가 다시 명월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일본에 뿌리내린 지 벌써 37년 째. “밥 먹고 청소하고 잠자고 공부하고 신도들 만나고 그게 전부지. 특별한 게 있겠어요.” 초하루 법회 하루 전 일본에서 각원사로 내려오자마자 신도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자정이 넘어서야 다시 각원사로 돌아온 탓인지 스님의 얼굴엔 다소 피곤한 기색이 돌았다. 3시간 남짓 수면을 취하고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신도들을 만나면 차에 기자와 마주한 법인 스님. 하지만 깨끗한 자세와 잔잔한 미소는 여전했다. 스님의 일상은 명월사에서나 각원사에서나 늘 한결같다. 웬만한 것은 무엇이나든 직접하고, 손에서 책을 놓는 법이 없다. 경전이란 전문서적이든 가

리지 않는다. “즐거하시고 저쪽도 공부해보자고 원을 세웠어요. 공부든 수행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간절한 원이 없으면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부 못 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향하는 것입니다. 배풀지 않는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공부가 어찌 나 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실천없는 깨달음은 공허합니다. 자기 공부와 수행은 곧 사회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기 힘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인과법이지요. 제가 포교를 중요 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법인 스님은 문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화승이자 선(禪)선과 율(律)을 겸비한 스님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법인 스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포교다. 실제로 명월사에서 해외포교는 물론이고 국내 포교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다. 커다란 좌불상으로 상징되던 각원사가 짧은 시간에 웅장한 대웅전과 여러 수행공간 등을 갖춘 대가람으로 태어난 것도 바로 포교 원력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일본 유학시절 한 재일동포의 시주로 각원사 불사를 시작한 법인 스님은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몇 차례 난관에 부딪혔다. 하지만 고비 때마다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시켰다. 타종교인이나 구두쇠로 소문난 지역 유지를 감동시켜 5천 평의 땅을 보시받은 일화는 지금도 지역에서 회자되고 있다. 각원사는 그렇게 법인 스님의 뜻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도 스님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스님은 지금 지역불자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신행할 수 있는 불교화관을 건립 중이다. 불교화관이 완공되면 유치원도 만들 생각이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씩’을 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시대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가 옛날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지금 세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겠습니까. 현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은 실천에 있습니다. 불자들이 한사람 한사람이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개척자 말입니다. 그래야 가치있는 정신세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인 스님은 항상 말을 조심한다. 스님들조차도 많이 쓰는 ‘부처’ ‘종’ ‘대체’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않는다. 말이 끈지 않으면 스스로 끈지 않은 것이요, 곧 남을 끈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출가자의 본분이라고 하신다.

“내놓을 것이 없어 보여드린 것이 없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도 나이 숫자가 달라지는 것 빼고는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법인 스님은 얽은 미소를 지으면서 기자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신다. 잠깐이라도 스님을 뵈기 위해 취재가 끝나길 기다리는 많은 신도들에게도 스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지만 신도들은 많은 것을 얻어갈 것이다. 수행자가 울곧게 길을 가고 있으면 신도들은 그 모습에서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을 듣는 법이니까.

글=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韓·日 오가며 교학·포교에 매진

법인 스님은 16살에 출가해 60년 가까이 교학과 포교에 매진해왔다. 특히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과 청화 스님(조계종 교육원장) 등 뛰어난 스님들을 두었을 정도로 후진양성에 남다른 의지를 보였다. 1931년 경남 충무에서 태어나 46년 해인사로 출가한 뒤 법어사에

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마산 해인대학 종교학과, 동국대 사학과,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철학과 석사학위, 87년 일본 대동문화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75년 일본 도쿄에서 명월사를, 77년 천안 태조산 각원사를 창건했으며, 85년 평화통일문화협회 평화통일문화상을 수상했다. <불교입문>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연구> <개미집과 하루살이> 등의 저서가 있다.

혜거스님과 함께하는 하계 수련회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선문장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혜거스님의 참선지도로 수련회가 진행 됩니다. 특히 혜거스님의 참선법문과 개인 면담이 계획되어 있는 하계수련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대학생이상 남·녀 일만인 35명씩(선착순)
- 일 정 : 3박 4일

1차	7월 14일(금) ~ 7월 17일(월)
2차	7월 21일(금) ~ 7월 24일(월)
3차	7월 28일(금) ~ 7월 31일(월)

- 장 소 :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선문장(강원도 홍천 소재)
- 참가비 : 7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3040-51-017583 예금주:손수열)
- 준비물 :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운동화
- 접수 및 문의 : 홍천 선문장 (TEL : 033)433-5845~6 / FAX : 033)433-5847)
- 교통편 : [승용차] 서울 - 88도로 - 양평 - 홍천(44번국도) - 철정검문소에서 우회전(향남,현리방향) - 451번지방도로 (7km정도가면 좌측에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팻말 보임)
- [버 스] 1) 동서울터미널 또는 상봉터미널에서 홍천행 버스
2) 홍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상대리행 표 구입
- 1번홈에서 내촌혹은현리행 버스 승차
- 화상대리 학교 앞 하차

대한불교 조계종 金剛禪院

교보문고 비소설부분 베스트셀러 선정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통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리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차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에게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 컬러(183×235), 288페이지 • 저자 : 김경우 • 가격 : 24,000원

|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

중국차의 이해



“잘못 바로 잡아가는 것이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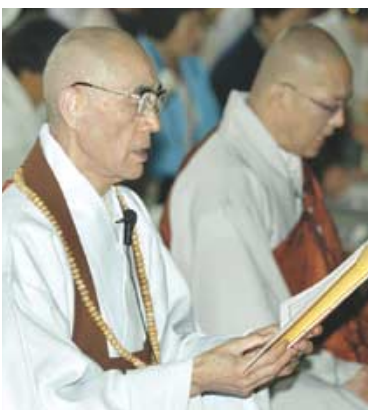
불자라면 사홍서원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네 가지지요. 하지만 이것이 서원에 그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탐진치 삼독을 끊어라”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법문 한 두 번 들어 보지 않은 불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설계해 나가려면 적당한 욕심 없이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작정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 가슴에 와 닿을까요? 욕심을 내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요. 그런데 무조건 욕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겠다는 깨끗한 욕심이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은 과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00원어치 맘을 흘리고 200원을 받겠다면 그것이 바로 과욕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무엇을 베풀며, 생활인이 마음을 어찌 비우고 탐진치 삼독을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그 가르침의 결반 보고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것이 어찌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삼독을 끊는 것이 어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면 되고, 삼독을 끊으려고 생활 속에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그 가르침을 어떻게 응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자세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게 됩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당연한 일이라 여길 것이 아니라 적어도 화내는 경우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법인 스님의 가르침



100원어치 맘 흘리고

200원 받겠다면 ‘과욕’

생활 하나하나 부처님 법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해야

개인이 발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만이 법문이 아닙니다. 생활의 모든 것이 법문입니다. 부처님 법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디서 무슨 법문을 구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가려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禪)을 하는 사람들은 교(敎)를 등한시하

고, 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선을 등한시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선과 교가 둘이 아닌데, 어느 한쪽만 치중하는 것은 반쪽이 불과합니다. 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학이 필요하고, 교학이 제대로 익기 위해서는 선을 알아야 합니다.

교라는 것은 주춧돌과 같은 것입니다. 참선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가 바탕이 돼야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처님 법을 알 수는 없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율(律)입니다. 율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화합입니다. 율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속박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자발적 의지입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폭넓게 생각하면 자비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죽이지 않겠다’고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불쌍한 짐승이 있으면 보살펴 주겠다’고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모두 생명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법칙에 순응해 생명을 잘 가꾸는 것이 불살생이고 세상과 화합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화합입니다.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위하는 것이 화합이지요.

교와 율에 충실하다보면 견성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혼자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이로운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이치를 아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하며, 친절해야 합니다. 또 부지런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법력난사의(法力難思議) 대비무장애(大悲無障礙)’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진리는 헤아리기 어려우며, 부처님 대자비에는 장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비심으로 화합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부처님 법을 믿으세요.

정리=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9>



‘분별심’은 어떻게 분별하지?(2)

어느 날 왕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수십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은 그들 앞에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끼리라는 동물이다. 자, 너희는 각자 이 동물을 만져보고 나에게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해보아라.”

그들은 한참 코끼리를 더듬고 어루만진 뒤에 한 사람씩 자기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려본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폐하, 코끼리는 쟁기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본 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예전에 쟁기라는 연장을 꼼꼼하게 만져본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 옆의 사람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들이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거나 남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할 때 그 바탕에는 대체로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자기를 따라주면 기뻐하고 우물대지만 자기를 따라주지 않으면 원한을 품거나 서운해 하거나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응크리고 있는 욕심을 덜어 내지 못하고, 사물이나 사건에 흐르는 인과의 법칙과 인연의 법칙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잣대로 세상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해라고 판단하고 그에 다루는 것을 ‘사랑분별’, ‘분별심’, ‘망상’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분별심’은 바로 이런 ‘어리석음’과 ‘욕심’을 바탕으로 한 잣대입니다.

그러나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그 일을 대하는 자기 마음 속에 사리사욕이 없고, 그 일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가장 정확한 원인과 그 일을 둘러싼 인연들을 동시에 파악하려는 뜻인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판단도 내리지 말라거나, 더구나 사기꾼의 행동과 경멸의 존재를 똑같이 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대하는 자신에게 그와 같은 분별심이 사라진다면 그는 가장 자유롭고 위풍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것이나 들은 것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고 보면서 그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른 것은 하찮은 것이라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착하고 건전한 사람들은 그것을 속박이라고 말한다. 본 것이나 들은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남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고 당파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숫타니파타>의 노래처럼, 속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속박에서 풀려난 사람은 이제 분별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가치기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청천이나 비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욕심과 성냄을 벗어 버렸고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일들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참자유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 이미형(동국대학교 역경연구원)

자기 생각 강요할 땐 명예욕 깔려 일의 정확한 원인·인연 파악해야 분별심은 ‘욕심’ 바탕으로 한 잣대

“무슨 소리 하는 것이요? 폐하,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그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의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쌀을 까부르는 키퍼처럼 생겼습니다”라 답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도 모두 자기가 만진 부분만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거나 들어두었던 사물에 비유하여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 옳고 다른 이의 생각은 틀렸다고 고집하며 끝없는 말다툼을 벌였습니다.<경변왕경>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판단하고 결정짓는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더듬은 부분만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이게 바로 코끼리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그런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부분적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부리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가장 정확한 생각이라고 선불리 판단을 내린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받아

받도 내리지 말라거나, 더구나 사기꾼의 행동과 경멸의 존재를 똑같이 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대하는 자신에게 그와 같은 분별심이 사라진다면 그는 가장 자유롭고 위풍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것이나 들은 것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고 보면서 그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른 것은 하찮은 것이라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착하고 건전한 사람들은 그것을 속박이라고 말한다. 본 것이나 들은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남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고 당파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숫타니파타>의 노래처럼, 속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속박에서 풀려난 사람은 이제 분별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가치기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청천이나 비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욕심과 성냄을 벗어 버렸고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일들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참자유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 이미형(동국대학교 역경연구원)

元·氣·回·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양”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화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강노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완성동맥,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약자에게,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하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功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踴躍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리내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정(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스님만의 특유한 자연건강 비법과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마음과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난치병 불치병 등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해광(慧廣)스님을 아십니까?**

KBS, MBC, 연합불교방송 등 방송매체와 35회 이상 언론에 보도된 **해광스님 (필명 李海堂)**

성공한 사업가(전직 무역회사 회장, 수출담 수상), 자연건강 연구가(자연건강 1급 지도사, 자연건강 연구 15년), 소설가, 투병생활 9년, 불가에 귀의(1989년, 1996년 법사계 전법), 외국(日·越·태국)사원 자연건강 비법 전수, 한국 인물사(대한민국 역사편찬위 발행 1990)수록.

KBS 방영 - 이제는 중생 구제다 -

KBS의 “해광스님의 자연건강 행복한 삶” 프로(2005.7.10 방영)에 특별 출연하여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주고자 70노구를 바치겠노라 다짐하며 자신의 투병생활 장소이자 바닷가의 별장에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약사암(藥師庵)을 창건하다

손꼽히는 한려수도 **관광과 방생지**

거제도 바닷가 황토굴에서 새 생명을!
- 몸속에 가득 채워진 독소 (오염된 물, 공기, 중금속 오염, 약품과용, 가공식품)을 천연 황토동굴에서 제거 해야 한다 - 스님 자신이 투병생활에서 얻은 결론이다.

스님과 친연을 원하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지논객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산 1-3 약사암 (동부면 민사무소에서 1Km 거리, 민사무소 - 오송리 중간 우측)
전화 : 055)632-2483 / 휴대폰 : 018-591-1322

인터넷 검색(해광스님 관련)
http://www.cafe.daum.net/yaksaaam
http://www.cafe.daum.net/Osongwon
http://www.cafe.naver.com/leehaedang
E-mail: lom1209@hanmail.net